

중3 영어 교과서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에 나타나는 부정사의 분포*

이현우**

|| 차례 ||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및 논의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현행 중3 교과서 5종과 2015-2016 학년도 NAEA 영어 시험에 나타나는 부정사의 용례를 형식통사론적인 입장에서 분류하고, 각각의 용례 분포가 자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하여 조사한다. Monte Carlo 정확검정을 실시한 결과, 현행 중3 교과서와 2015-6학년도 NAEA 영어 시험은 부정사의 주요 용례 분포, 내부 논항 용례 분포, 부사적 용례 분포, 그리고 형용사의 보충어 용례 분포에 있어서 자료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들 자료들은 부정사의 동사 보충어 용례의 분포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후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결과가 부정사의 동사 보충어 용례 분포 양상이 2015학년도 NAEA 영어 시험에서 너무 특출한 것에 기인한 것임을 밝힌다.

주제어 :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Middle School English 3, NAEA 시험, 부정사, 교차분석, Monte Carlo 정확검정, 사후분석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hylee@inha.ac.kr

1. 서론

현행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크게 중학교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공통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3~4학년군, 초등학교 5~6학년군 그리고 중학교 1~3학년군으로 다시 나뉘어 있다. 공통 교육과정이 이렇게 학년군별로 세분되면서, 학년군별로 성취 기준이 정해지고 학년군별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 수에 대한 제한 또한 정해져 있다.¹⁾

비록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어휘 제한이 학년군별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서는 학년군별로 제작이 되지 않고 학년별로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9월에 고시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현행 영어 교과서는 학년군별 또는 학년별로 사용 종료 시점이 다르다. 중1 교과서는 2017학년도가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년도이지만, 중2 교과서와 중3 교과서는 각각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과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새 교과서의 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본 논문은 영어 부정사의 용례가 중3 교과서와 중3 학생이 치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후 NAEA라 칭함) 시험에서 분포에 있어서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공통 교육과정의 최고 단계인 중학교 3학년의 영어 교과서와 NAEA 영어 시험의 지문 상당수는 복문으로 되어 있고 이들 복문은 보충절, 종속절, 관계절, 분사절, 부정사절 등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문법적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정사의 용례 파악이 특히 글의 이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와 관련하여, Kim & Yoo(2015)는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별

1) 공통 교육과정의 학년군별 성취 기준을 보려면,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를 참조할 것. 이 고시에 따르면, 초등학교 3~4학년군은 240 낱말 내외, 초등학교 5~6학년군은 260 낱말 내외(누계: 500 낱말 내외), 그리고 중학교 1~3학년군은 750 낱말 내외(총계: 1,250 낱말 내외)의 어휘 제한이 있다.

표 4】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에서 부정사가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언어 형식의 예로 두드러지게 다양하고 많이 제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Quintero Ramirez(2015)는 부정사가 BE06 Corpus of British English에서 매우 흔히 사용되는 비정형 동사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Biber(1991)는 부정사의 용례와 담화 기능이 분사절, 관계절, 부사절보다 더욱 일반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Beaman(1984)은 부정사가 다른 비정형 명사절(특히 동명사절)과 동일한 자리에서 사용되기도 하면서 구어에서보다 문어에서 더 자주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어의 사용에 있어서 부정사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중3 교과서와 2015-2016학년도 NAEA 영어 시험의 읽기 지문에서 사용된 부정사의 용례의 빈도를 비교·분석하여 이들 자료들이 부정사의 용례별로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 연구에서 얻은 결과가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서 개발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별표 4】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에서 부정사의 용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은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예들이다.

- (1) a. **To** see is **to** believe.
- b. He wanted **to** go home.
- c. He seemed **to** have been ill (for some time).
- d. Sue believed John **to** pass the exam.
- e. Dan wanted Pam **to** behave herself.
- f. Ron is hesitant **to** agree with you.
- g. Ron is hard **to** convince.
- h. I have a book **to** read.
- i. He came **to** see me.
- j. We are very glad **to** hear that.
- k. This new ship is big enough **to** cross the Pacific.
- l. There are twelve people present, **to** be precise.

m. Are you going to catch the last train?

(1)에서 보듯이,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이 예시하고 있는 부정사의 용례는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면서 동일한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만든 현행 중3 교과서와 NAEA 영어 시험에 나타난 부정사의 용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맞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교차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²⁾

귀무가설 1: 현행 중3 교과서 5종과 2015-6학년도 NAEA 영어 시험에 나타난 부정사의 주요 용례의 분포가 자료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귀무가설 2: 현행 중3 교과서 5종과 2015-6학년도 NAEA 영어 시험에 나타난 부정사의 내부 논항 용례의 분포가 자료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귀무가설 3: 현행 중3 교과서 5종과 2015-6학년도 NAEA 영어 시험에 나타난 부정사의 부사적 용례의 분포가 자료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귀무가설 4: 현행 중3 교과서 5종과 2015-6학년도 NAEA 영어 시험에 나타난 부정사의 동사의 보충어 용례의 분포가 자료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귀무가설 4: 현행 중3 교과서 5종과 2015-6학년도 NAEA 영어 시험에 나타난 부정사의 형용사의 보충어 용례의 분포가 자료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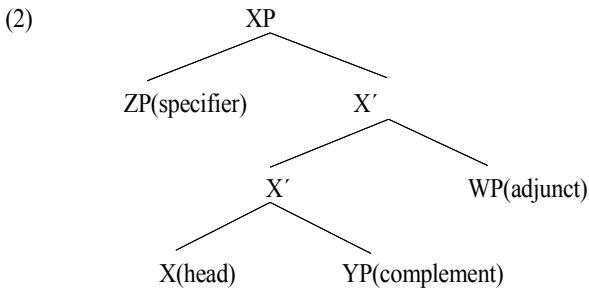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영어 부정사의 용례

2) 본 연구는 읽기 자료에 나타난 부정사의 용례 분포를 조사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듣기나 말하기 자료를 배제하였고, 일관성이 있는 용례 조사를 위해 교과서의 단원이나 소제목, 본문의 읽기 중 질문(while-reading questions), 그리고 문항의 선지 등에서 사용된 부정사의 예는 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핵심 중의 하나는 영어 부정사의 용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부정사의 용례에 대한 정확한 구분 없이 얻게 된 연구 결과는 아무리 유의미한 결과라고 해도 타당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Jackendoff(1977), Quirk et al.(1985), Chomsky(1993), Huddleston & Pullum(2002), 그리고 Downing(2015)을 참고하여 영어 부정사의 용례를 크게 외부 논항의 용례, 내부 논항의 용례, 형용사적 용례, 그리고 부사적 용례로 구분한다.

Jackendoff(1977)와 Chomsky(1993)를 중심으로 한 형식통사론자들은 한 어휘가 문장에서 사용될 때 다음과 같이 투사된다고 주장한다.



X가 타동사 ‘write’라고 할 때 ‘a book’을 보충어로 택해 V’로 투사되고 이 V’범주가 다시 ‘last year’과 같은 부가어를 택해 VP나 V’로 투사된다. 지정어가 없으면 VP로 투사되고 지정어가 있으면 V’로 투사된다. 이러한 X-바 이론에서 지정어 자리에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표현이 오는데 이를 X의 외부 논항이라고 부르고 보충어 자리에 오는 표현을 X의 내부 논항이라고 부른다. 부가어 자리에는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표현이 온다.

(2)에서 설명한 통사론적 관점에서 볼 때, 영어의 부정사절은 주로 외부 논항으로서, 내부 논항으로서, 또한 부가어로서 사용되는데, 부가어의 용례는 다시 형용사적 용례와 부사적 용례로 세분된다.

2.1.1. 외부 논항의 용례

앞서 설명했듯이, 부정사절이 외부 논항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문장의 주어로 사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외부 논항의 용례는 다시 (3a)와 같이 순수한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와 (3b)와 같이 외치된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로 세분된다.³⁾

(3) 문장의 주어

- a. *To have a motto* is helpful.
- b. It is important *to learn the right riding position*.

본 연구의 자료에서 외부 논항으로 사용된 부정사절은 모두 외치된 주어의 예들뿐이다.

2.1.2. 내부 논항의 용례

부정사절이 내부 논항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명사, 동사, 형용사, 또는 전치사의 보충어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Downing(2015)은 부정사절이 명사의 보충어로 사용될 때 핵인 명사가 동사나 형용사에서 파생되거나 ‘chance’나 ‘opportunity’와 같은 단순 명사인 두 경우가 있다고 본다.

- (4) a.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핵: hope, decision, desire, failure, plan
- b. 형용사에서 파생된 명사 핵: ability, willingness, eagerness
- c. 단순 명사: chance, effort, opportunity,
- (5) a. There's no hope *for him to live a normal life*.
- b. The ability *to communicate* is important for all people.
- c. William had a chance *to study in high school again*.

명사의 보충어로 사용되는 부정사절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명사 ‘way’

3) 2장의 예문들은 거의 모두 본 연구의 자료에서 가져온 예문들이거나 이들 예문에 최소한의 수정을 가해 만든 예문이다.

다음에 오는 부정사절이 부가어로서 취급되지 않고 보충어로 취급된다는 점이다.

- (6) a. He could find another *way to pitch*.
- b. That's a really *effective way to share information*.

(5)의 예에서 보듯이, 명사의 보충어가 되는 부정사절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위나 목표를 나타내는데, (6)의 부정사절 또한 예외가 아니다.

동사의 보충어로 사용되는 부정사절은 다른 품사에 속하는 핵의 보충어로 사용되는 부정사절보다 수도 월등히 많고 종류도 훨씬 다양하다. 먼저, 동사의 보충어로서의 부정사절은 (7)의 예문에서 보듯이 'be' 동사와 같은 자동사의 서술 보어(predicative complement)로 사용될 수 있다.

- (7) 서술 보어
- a. His idea was *to draw lines on the ceiling*.
- b. The first thing she did was *to look around her*.

동사의 보충어로서의 부정사절은 서술 보어뿐만 아니라 다른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들 절을 보충어로 취하는 동사의 의미 특성에 따라, 동사를 통제(control) 동사와 인상(raising) 동사로 구분한다. 동사가 외부 논항에 행위자(actor)와 같은 의미역을 부여하는 동사는 통제 동사이고 그러한 의미역을 부여하지 못하는 동사는 인상 동사이다.

아래 예문은 통제 동사가 단순히 부정사절만을 보충어로 택한 예들이다.

- (8) 통제 동사의 단순 보충어
- a. She wanted *to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 b. I decided *to donate it to soup kitchens for the homeless*.
- c. Kate promised *to do her best in high school*.

이들 예문에서 부정사절의 의미상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가리키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이들 두 주어에 할당되는 의미역은 다르다. 예를 들어, (8c)에서 주절의 주어 'Kate'에게는 약속하는 행위자의 의미역이 주어지지만 부정사절의 의미상 주어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의미역이 주어진다.

통제 동사가 단순히 부정사절만을 보충어로 취하지 않고, (9)의 예문에서 처럼 통제 동사에 의해 의미역을 할당 받는 목적어와 부정사절을 보충어로 취하기도 한다.

(9) 통제 동사의 복합 보충어

- a. They all begged the queen *not to sell Jumbo*.
- b. At night, the teacher told us *to go to bed*.
- c. She asked the photographer *to take some photos*.

'beg', 'tell' 그리고 'ask'는 두 개의 의미 단위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tell'은 지시를 듣는 의미역을 가진 목적어와 지시 내용에 해당하는 to-부정사절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통제 동사가 목적어와 부정사절을 보충어로 취할 때, 부정사절의 의미상 주어는 주어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적어에 의해서 통제된다.⁴⁾ 이러한 유형의 통제 양상을 보여주는 동사들로는 위의 동사들 외에 'get', 'inspire', 'force', 'persuade', 'invite', 'convince', 'assure', 'teach', 'help' 등이 있다.

인상 동사가 단순히 부정사절을 보충어로 취할 때에 인상 동사는 (10)에서 보듯이 주절의 주어 자리에 아무런 의미역도 할당하지 못한다.

(10) 인상 동사의 단순 보충어

4) 'promise'와 같은 통제 동사는 목적어와 부정사절을 보충어로 취하지만, 아래 예문에서 보듯이 부정사절의 의미상 주어는 목적어가 아닌 주어에 의해 통제된다.

(i) Bill promised Jane *to teach her the history of art*.

(i)에서 부정사절의 의미상 주어는 목적어 'Jane'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어인 'Bill'에 의해서 통제된다. 본 연구의 자료에 'promise'와 같은 동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동사의 보충어로 사용되는 부정사절은 무시한다.

- a. There seems *to be nothing but the sound of birds*.
- b. The boy seems *to be encouraging the man to go faster*.
- c. I started *to learn those skills from my master*.
- d. That night, it started *to rain*.

(10a)에 주절의 주어로 허사 ‘There’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seems’가 주어에 아무런 의미역도 할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10d)의 주절의 주어로 허사 ‘it’이 사용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동사 ‘start’나 ‘continue’ 또한 인상 동사이다. 이들 동사 외에도 단순히 부정사절을 보충어로 취하는 인상 동사에는 ‘appear’, ‘prove’, ‘fail’, ‘turn out’, ‘begin’, 그리고 ‘come’ 등이 있다.

인상 동사 또한 단순히 부정사절을 보충어로 취할 뿐만 아니라 (11)과 같이 목적어를 보충어에 포함할 수 있다.⁵⁾

(11) 인상 동사의 복합 보충어

- a. Europeans believed *it to bring good luck to people*.
- b. Nobody expected *him to pitch again*.
- c. His poor family wanted *him to find another job*.

(11)의 예문에서 목적어와 부정사절이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룬다. 이는 목적어가 부정사절의 의미상 주어로 부정사의 동사로부터 의미역을 할당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11)의 동사들이 속하는 인상 동사의 집단에는 ‘assume’, ‘feel’, ‘find’, ‘imagine’, ‘suppose’, ‘think’, ‘watch’, ‘hear’, ‘cause’, ‘require’ 등이 있다.

5) 익명의 한 심사자가 본 논문에서 (11)의 동사들을 ECM 동사로 취급하고 있는가라는 질의를 하였다. 복합 보충어를 취하는 거의 모든 동사들이 ECM 동사이지만 모든 동사가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1c)의 *want*는 인상동사로 취급되지만 *him*에게 격을 부여하는 것이 *wanted*라기보다는 공범주의 보문소이기 때문에 ECM 동사로는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말하는 인상 동사는 ECM 동사와 *want*와 같은 동사를 포함하는 부류의 동사를 말한다.

Payne(1999)은 ‘order’, ‘allow’, ‘permit’, ‘enable’, ‘authorize’와 같은 동사는 (12) 문장에서 보듯이 복합 보충어를 취하는 통제 동사나 인상 동사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2) The general ordered the soldiers *to blow up the bridge at dawn*.

동사 ‘order’가 통제 동사로 사용된 경우에 (12)가 의미하는 것은 장군이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새벽에 다리를 폭파하라고 했다는 것이며, ‘order’가 인상 동사로 사용된 경우에 위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장군이 누구에게 명령을 내렸는지는 불명하지만 병사들로 하여금 다리를 새벽에 폭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13a)와 같이 목적어로 허사가 오거나 (13b)와 같이 무생물 목적어가 오면 ‘order’는 인상 동사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13) a. The general ordered *there to be an attack at dawn*.

b. The general ordered *the bridge to be blown up at dawn*.

이제까지 동사의 내부 논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정사절을 다섯 종류로 기술하였는데, 이들 다섯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용 빈도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이들을 기타 항목으로 함께 분류하였다.

(14)의 예문에서 보듯이, 부정사절의 의미상 주어가 보문소 ‘for’에 의해 명시되는 경우가 있다.

(14) a. Pan waited *for a traveler to pass*.

b. They arranged *for him to get a new suit*.

(15)의 예문에서 보듯이, 부정사절이 외치된 목적어로 사용될 수도 있다.

(15) This made it difficult *for poor people to get enough*.

명사와 동사 외에도 형용사 또한 부정사절을 보충어로 취한다. 일반적으로,

형용사의 의미론적·통사론적 특성에 따라 두 종류의 보충화 양상을 구분할 수 있다.

(16) 통제 형용사의 보충어

- a. You'll be able *to better understand yourself and other people.*
- b. They are willing *to talk about their personal lives on TV.*
- c. This snakes will soon be ready *to strike its prey.*

(17) 인상 형용사의 보충어

- a. This name is easy *to remember.*
- b. Art was too difficult *to understand.*
- b. Mountain bikes are *good to ride on rough mountain roads.*

(16)의 예문에서 보듯이, ‘able’, ‘willing’, 그리고 ‘ready’와 같은 통제 형용사를 포함하는 문장에서는 비록 주절의 주어와 부정사절의 의미상 주어가 동일한 지시 대상을 가리키지만 이들 두 주어의 의미역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16b)에서 주절의 주어 ‘They’가 무엇인가 기꺼이 하려는 행위자의 의미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부정사절의 의미상 주어는 무엇인가 말하는 행위자의 의미역을 가진다. 반면에, (17)의 예문에서 보듯이, ‘easy’, ‘difficult’, 그리고 ‘good’과 같은 인상 형용사를 포함하는 문장에서는 주절의 주어와 부정사절의 의미상 주어가 서로 다른 지시 대상을 가리키며 또한 서로 다른 의미역을 가진다. 실제, 주절의 주어에게 의미역을 할당하는 것은 주절의 술어가 아니고 부정사절의 동사이다. 예를 들어, (17b)에서 주절의 주어 ‘Art’는 ‘understand’에 의해서 이해의 대상이라는 의미역을 할당 받는다.⁶⁾

6) (17b)의 인상 형용사들은 전형적인 인상 형용사가 아니다. 전형적인 인상 형용사는 (i)의 문장들이 예시하는 것처럼 부정사절이 주절의 주어에 의미역을 부여하는 형용사들이다.

(i) a. There is likely *to be an attack at dawn.*
 b. His sister is certain *to faint.*
 c. The disease is apt *to spread in such a degree.*

본 연구의 자료에서는 이러한 용례의 부정사절이 없기 때문에 인상 형용사를 (17b)의 형용사로 국한한다.

마지막으로, (18)에서 보듯이, 전치사 또한 부정사절을 보충어로 취할 수 있다.

(18) 전치사의 보충어

They are becoming more concerned about *how to use space safely*.

명사, 동사, 형용사와 달리, 전치사가 부정사절을 보충어로 취하려면 부정사절이 반드시 wh-구에 의해 이끌리는 의문절이어야 한다.

2.1.3 형용사적 용례

(2)의 X-바 투사 도해에서 보았듯이, 부가어 자리는 핵의 X-bar 투사를 수식하는 표현이 차지한다. X가 명사인 경우, 부가어 자리에 전치사구나 형용사구처럼 명사의 중간 투사를 수식하는 구가 올 수 있고, X가 동사인 경우, 부가어 자리에 전치사구나 부사구처럼 동사의 중간 투사를 수식하는 구가 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가어로서 명사의 중간 투사를 수식하는 부정사절을 형용사적 용례라 칭한다.

부정사절이 형용사적 용례로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 (19) a. He became the first man ever *to reach the top of Mt. Everest*.
- b. The Antarctic is a great place *to study astronomy*.

2.1.4. 부사적 용례

본 연구에서는 부가어로서 동사의 중간 투사를 수식하는 부정사절을 부사적 용례라 칭한다. 부사적 용례는 다시 원인/이유, 목적, 정도의 기준, 문체 이접사(style disjunct)로 세분되는데, 이들의 용례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 (20) a. I'm happy *to write to you from the Antarctic*.
- b. He was very excited *to see that it worked*.

- (21) a. Lean against something or hold something *to relax*.
 b. They used power of music *to attract more customers*.
- (22) a. They often grow enough food *to feed their whole family*.
 b. His family was too poor *to pay for school*.
- (23) *To put it simply*, to make hamburgers, we raise cows.

(20)의 문장들은 부정사절이 원인을 나타내는 용례를 예시하고, (21)의 문장들은 목적을 나타내는 용례를 예시한다. (22a)는 부정사절이 충분함의 기준 정도를 나타내는 용례를 보여주고, (22b)는 과도함의 기준 정도를 나타내는 용례를 보여준다. (23)의 첫 번째 부정사절은 Quirk et al.(1985)의 문체 이접사를 예시한다.⁷⁾

2.2 선행 연구

김은정(2015)은 5종의 현행 중3 영어 교과서에서 사용된 to-부정사의 용례의 빈도를 조사하면서, 부정사의 명사적 기능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이 가운데에서도 보충어로서의 용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김은정의 연구는 부정사의 보충어로서의 용례에 대한 통사론적으로 심층적인 분류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소 피상적인 분류에 의한 용례의 빈도 제시에 그치고 말아 교과서 간에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서 심도 있는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반면, 이지현(2016)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제작된 4종의 영어 I 교과서와 2015-2016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에서 제시된 부정사의 용례를 형식통사론적인 입장에서 분류하고, 각각의 용례 분포가 자료에 따라서 다른지를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검정 결과를 통하여, 부정사의 부사적 용례를 제외한 부정사의 주요 용례, 내부 논항 용례, 동사의 보충어 용례에 있어서 그 분포가 자료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지현은 이러한 연구 결과가 영어 I 교과서 거의

7) 문체 이접사로 사용된 부정사절은 본 연구의 자료를 통틀어 하나에 불과하다.

모두가 충분한 정도의 부정사의 예를 제시하지 못하고 내부 논항으로서의 용례와 부사적 용례에 집중하여 예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지현(2016)이 취한 연구 방법론을 큰 틀에서 그대로 따르지만 작은 틀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have to’와 같이 관용적인 표현에 사용되는 부정사의 관용적인 용례를 주요 용례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례가 본 연구의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의 부사적 용례를 무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지현의 연구는 복합 보충어를 취하는 동사 ‘want’를 통제 동사로 취급하였으나, 본 연구는 이 동사를 Payne(1999)과 Huddleston & Pullum(2002)을 따라 인상 동사로 취급하고, ‘allow’와 ‘order’ 등의 동사가 문맥에 따라 통제 동사와 인상 동사로 사용된다는 주장을 수용하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도 이를 반영하였다.

3.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2009 교육과정에 기초한 중3 교과서 중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5개 출판사의 교과서와 2015-2016학년도 NAEA 영어 시험을 분석하였다. 이들 자료의 개략적인 양적 특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분석 자료의 양적 개관

분석 대상	단원 수	단어 수
교과서 A	10	4,435
교과서 B	11	4,146
교과서 C	10	3,635
교과서 D	10	4,458
교과서 E	11	3,597
2015학년도 NAEA	22개 독해 지문	2,014

2016학년도 NAEA	22개 독해 지문	2,207
--------------	-----------	-------

앞서 설명하였듯이, 본 연구는 교과서의 읽기 본문과 NAEA 영어 시험의 22개의 읽기 지문만 다루었다. 단어 수로 보았을 때, 교과서의 본문은 NAEA 검사지의 평균 2배 정도이다. 교과서 D가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교과서 E가 가장 적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861단에 이른다.

3.2. 분석 기준

본 연구는 2장에서 기술한 부정사의 용례를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표2>와 같다.

<표2> 분석 기준: 부정사의 주요 용례 및 세부 용례

주요 용례	세부 용례	
외부 논항	주어 및 외치된 주어	
내부 논항	명사의 보충어	
	동사의 보충어	서술 보어
		통제 동사의 단순 보충어
		인상 동사의 단순 보충어
		통제 동사의 복합 보충어
		인상 동사의 복합 보충어
	기타(<i>for-NP-to</i> , 외치된 목적어)	
형용사의 보충어		
전치사의 보충어		
형용사적 용례	한정 수식어	
부사적 용례	원인/이유	
	목적	
	정도의 기준	
	문체 이접사	

3.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중3 교과서와 NAEA 영어 시험에 나타난 부정사의 주요 용례, 부사적 용례, 내부 논항 용례, 동사의 보충어 용례가 자료에 따라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먼저 용례 분석에 관해 통사론 전공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본 연구자와 외부 전문가가 각자 용례를 분석한 후,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서 수차례의 논의와 수정 절차를 거쳤다. 부정사의 용례에 관한 두 사람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Cohen's kappa 값이 낮게 나온 용례는 Cohen's kappa 값이 8.5 이상으로 신뢰도가 확보될 때까지 논의와 수정을 반복하였다.

용례 분석 후, 비교하고자 하는 자료 간의 용례 분포상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3.0 for Windows를 활용하여 교차 분석을 하였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Bonferroni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부정사 용례에 관한 자료별 분석

5종의 중3 교과서와 2개 학년도의 NAEA 영어 영역에서 사용된 부정사의 용례를 외부 논항으로서의 용례, 내부 논항으로서의 용례, 형용사적 용례, 부사적 용례, 그리고 관용적 용례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자료별 부정사의 용례 빈도

부정사의 용례					
외부 논	내부 논	형용사	부사적	소계	

	항	항				적	항				
		명사 보충어	동사 보충어	형용사 보충어	전치사 보충어		원인 / 이유	목적	정도	문체 이접사	
교과서 A	4	5	32	6	0	6	2	19	1	1	76
교과서 B	5	2	25	4	0	1	1	16	1	0	55
교과서 C	5	4	30	8	0	6	1	18	1	0	73
교과서 D	5	5	43	4	1	2	2	12	1	0	75
교과서 E	9	1	30	3	0	3	3	9	1	0	59
2 0 1 5	2	4	15	4	0	2	0	12	0	0	39
2 0 1 6	3	3	21	1	0	2	0	9	0	0	39

교과서 A는 10개 단원에 걸쳐 총 76개의 부정사를 사용하였다. 주요 용례 4가지 중 내부 논항 용례의 빈도가 가장 높다. 부사적 용례의 경우, 목적의 용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에 원인, 정도의 기준, 문체 이접사의 용례는 각

각 1개뿐이다. 다른 자료에 비해 부정사의 용례가 고루 소개되었지만, 전치사의 보충어로 사용된 부정사절은 하나도 없다.

교과서 B는 11개 단원에 걸쳐 총 55개의 부정사를 사용하였다. 주요 용례 4가지 중 내부 논항 용례가 가장 빈도가 높은 주요 용례인데, 형용사적 용례는 1개뿐이다. 부사적 용례에 있어서, 원인의 용례 1개와 정도의 기준 용례 1개를 제외한 모든 용례가 목적의 용례이다.

교과서 C는 10개 단원에 걸쳐 총 73개의 부정사를 사용했다. 다른 자료와 마찬가지로, 내부 논항 용례가 가장 빈도가 높은 주요 용례이다. 형용사적 용례가 6개 있는데, 교과서 A와 함께 가장 많은 형용사적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 부사적 용례의 세부 용례 양상이 교과서 B와 매우 유사하다.

교과서 D는 10개 단원에 걸쳐 총 75개의 부정사를 사용하였다. 다른 자료와 마찬가지로, 내부 논항 용례가 빈도가 가장 높은 주요 용례이다. 연구 자료 중 유일하게 전치사의 보충어 역할을 하는 부정사의 예를 제시하고 있지만, 예가 1개뿐이다. 부사적 용례가 앞서 언급한 교과서보다 적게 나오지만 세부 용례 양상이 이들 교과서와 비슷하다.

교과서 E는 11개 단원에 걸쳐 총 59개의 부정사를 사용하였다. 내부 논항 용례가 빈도가 가장 높은 주요 용례이지만, 다른 자료에 비해 외부 논항의 용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9개나 된다. 교과서 중에서 부사적 용례가 가장 적게 제시되어 있지만 세부 용례 양상이 다른 교과서와 비슷하다.

2015학년도 NAEA와 2016학년도 NAEA 영어 시험은 각각 22개의 독해 지문에서 총 39개의 부정사를 사용하였다. 단어 수에 비해 부정사의 사용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주요 용례 5가지 중 내부 논항 용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외부 논항의 용례였다. 부사적 용례의 세부 용례에 있어서도 원인/이유를 제외한 모든 용례가 1번 이상 사용되었다.

2016학년도 NAEA은 24개의 독해 지문(4,091 단어)에서 총 70개의 부정사를 사용하였다.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자료에서도 내부 논항 용례가 빈도가 가장 높은 주요 용례이다. 특이한 점은 이 두 자료에서 부사적 용례 중 목적의 용례만이 나온다는 점이다.

4.2. 연구 가설 검증

4.2.1. 귀무가설 1: 부정사의 주요 용례의 분포

‘현행 중3 교과서 5종과 2015-6학년도 NAEA 영어 시험에 나타난 부정사의 주요 용례의 분포가 자료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중3 교과서 및 NAEA 부정사의 주요 용례 교차분석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 검정)	Monte Carlo 유의확률 (양측 검정)		
				유의확률	99.9% 신뢰 구간	
					하한	상한
Pearson 카이제곱	15.048 ^a	18	.659	.665 ^b	.663	.666
Fisher의 정확검정	14.074			.713 ^b	.712	.715

a. 11셀(39.3%)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최소 기대빈도는 2.06임.

b. 난수 시작 값 2000000을(를) 가지고 1000000개 표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이 20%를 넘기 때문에, 귀무가설 1에 대해 Monte Carlo 정확검정을 하였다. 정확검정 통계량이 14.074이고 Monte Carlo 정확 유의확률이 .713인 것을 볼 수 있다. 유의확률이 일반적인 유의 수준인 .05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 수준 5%에서 귀무가설 1을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중3 교과서 5종과 2015-6학년도 NAEA 영어 시험에 나타난 부정사의 주요 용례의 분포가 자료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2.2. 귀무가설 2: 부정사의 내부 논항 용례의 분포

‘현행 중3 교과서 5종과 2015-6학년도 NAEA 영어 시험에 나타난 부정사의 내부 논항 용례의 분포가 자료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한 결과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중3 교과서 및 NAEA 부정사의 내부 논항 용례 교차분석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 검정)	Monte Carlo 유의확률 (양측 검정)		
				유의확률	99.9% 신뢰 구간	
					하한	상한
Pearson 카이제곱	13.848 ^a	18	.739	.784 ^b	.783	.786
Fisher의 정확검정	16.121			.660 ^b	.658	.661

- a. 17셀(60.7%)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최소 기대빈도는 .09임.
- b. 난수 시작 값 2000000(를) 가지고 1000000개 표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이 20%를 넘기 때문에, 귀무가설 2에 대해 Monte Carlo 정확검정을 하였다. 정확검정 통계량이 16.121이고 Monte Carlo 정확 유의확률이 .660인 것을 볼 수 있다. 유의확률이 일반적인 유의 수준인 .05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 수준 5%에서 귀무가설 2를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중3 교과서 5종과 2015-6학년도 NAEA 영어 시험에 나타난 부정사의 내부 논항 용례의 분포가 자료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2.3. 귀무가설 3: 부정사의 부사적 용례의 분포

‘현행 중3 교과서 5종과 2015-6학년도 NAEA 영어 시험에 나타난 부정사의 부사적 용례의 분포가 자료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한 결과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중3 교과서 및 NAEA 부정사의 부사적 용례 교차분석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Monte Carlo 유의확률
--	---	-----	---------	------------------

			(양측 검정)	(양측 검정)		
				유의확률	99.9% 신뢰 구간	
					하한	상한
Pearson 카이제곱	12.403 ^a	18	.826	.894 ^b	.893	.895
Fisher의 정확검정	13.745			.888 ^b	.887	.889

- a. 21셀(75.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최소 기대빈도는 .08임.
- b. 난수 시작 값 2000000(를) 가지고 1000000개 표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이 20%를 넘기 때문에, 귀무가설 3에 대해 Monte Carlo 정확검정을 하였다. 정확검정 통계량이 13.745이고 Monte Carlo 정확 유의확률이 .888인 것을 볼 수 있다. 유의확률이 일반적인 유의 수준인 .05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 수준 5%에서 귀무가설 3을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중3 교과서 5종과 2015-6학년도 NAEA 영어 시험에 나타난 부정사의 부사적 용례의 분포가 자료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2.4. 귀무가설 4: 부정사의 동사 보충어 용례의 분포

‘현행 중3 교과서 5종과 2015-6학년도 NAEA 영어 시험에 나타난 부정사의 동사의 보충어 용례의 분포가 자료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의 검증은 <표7>의 교차표에 기초한다.

<표7> 중3 교과서 및 NAEA 부정사의 동사 보충어 용례 분포

동사의 보충어 자료	빈도(%)						전체
	주격 보어	통계 동사의 단순 보충어	인상 동사의 단순 보충어	통계 동사의 복합 보충어	인상 동사의 복합 보충어	기타	
교과서 A	2 (6.7)	17 (56.7)	8 (26.7)	1 (3.3)	2 (6.7)	0 (0.0)	30 (100.0)

교과서 B	2 (8.0)	13 (52.0)	5 (20.0)	2 (8.0)	1 (4.0)	2 (8.0)	25 (100.0)
교과서 C	1 (3.3)	22 (73.3)	2 (6.7)	4 (13.3)	1 (3.3)	0 (0.0)	30 (100.0)
교과서 D	3 (7.0)	20 (46.5)	5 (11.6)	6 (14.0)	9 (20.9)	0 (0.0)	43 (100.0)
교과서 E	1 (3.3)	23 (76.7)	2 (6.7)	2 (6.7)	1 (3.3)	1 (3.3)	30 (100.0)
2015 NAEA	2 (13.3)	5 (33.3)	0 (0.0)	1 (6.7)	4 (26.7)	3 (20.0)	15 (100.0)
2016 NAEA	1 (4.8)	13 (61.9)	1 (4.8)	5 (23.8)	0 (0.0)	1 (4.8)	21 (100.0)
전체	12 (6.2)	113 (58.2)	23 (11.9)	21 (10.8)	18 (9.3)	7 (3.6)	194 (100.0)

<표7>의 교차표에 의거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중3 교과서 및 NAEA 부정사의 동사 보충어 용례 교차분석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 검정)	Monte Carlo 유의확률 (양측 검정)		
				유의확률	99.9% 신뢰 구간	
					하한	상한
Pearson 카이제곱	58.016 ^a	30	.002	.002 ^b	.001	.002
Fisher의 정확검정	46.174			.004 ^b	.004	.004

a. 34셀(81.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최소 기대빈도는 .54임.

b. 난수 시작 값 2000000을(를) 가지고 1000000개 표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이 20%를 넘기 때문에, 귀무가설 4에 대해 Monte Carlo 정확검정을 하였다. 정확검정 통계량이 46.174이고 Monte Carlo 정확 유의확률이 .004인 것을 볼 수 있다. 유의확률이 일반적인 유의 수준인 .05보다 작기 때문에 유의 수준 5%에서 귀무가설 4를 기각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중3 교과서 5종과 2015-6학년도 NAEA 영어 시험에 나타난 부정사의 동사 보충어 용례의 분포가 자료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2.5. 귀무가설 5: 부정사의 형용사 보충어 용례의 분포

‘현행 중3 교과서 5종과 2015-6학년도 NAEA 영어 시험에 나타난 부정사의 형용사의 보충어 용례의 분포가 자료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의 검증은 <표9>의 교차표에 기초한다.

<표9> 중3 교과서 및 NAEA 부정사의 형용사 보충어 용례 분포

형용사의 보충어 자료	빈도(%)		
	통제 형용사	인상 형용사	전체
교과서 A	2 (33.3)	4 (66.7)	6 (100.0)
교과서 B	3 (75.0)	1 (25.0)	4 (100.0)
교과서 C	4 (50.0)	4 (50.0)	8 (100.0)
교과서 D	1 (25.0)	3 (75.0)	4 (100.0)
교과서 E	1 (33.3)	2 (66.7)	3 (100.0)
2015 NAEA	3 (75.0)	1 (25.0)	4 (100.0)
2016 NAEA	1 (100.0)	0 (0.0)	1 (100.0)
전체	15 (50.0)	15 (50.0)	30 (100.0)

<표9>의 교차표에 의거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중3 교과서 및 NAEA 부정사의 형용사 보충어 용례 교차분석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 검정)	Monte Carlo 유의확률 (양측 검정)		
				유의확률	99.9% 신뢰 구간	
					하한	상한
Pearson 카이제곱	5.000 ^a	6	.544	.610 ^b	.608	.611
Fisher의 정확검정	4.854			.610 ^b	.608	.611

- a. 14셀(10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최소 기대빈도는 .50임.
- b. 난수 시작 값 2000000을(를) 가지고 1000000개 표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이 20%를 넘기 때문에, 귀무가설 5에 대해 Monte Carlo 정확검정을 하였다. 정확검정 통계량이 4.854이고 Monte Carlo 정확 유의확률이 .610인 것을 볼 수 있다. 유의확률이 일반적인 유의 수준인 .05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 수준 5%에서 귀무가설 5를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중3 교과서 5종과 2015-6학년도 NAEA 영어 시험에 나타난 부정사의 형용사 보충어 용례의 분포가 자료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3. 논의

교차분석에 의한 귀무가설 검증을 통해, 5종의 중3 교과서와 2015-6학년도 NAEA 영어 시험은 동사의 보충어 용례를 제외한 모든 부정사의 용례 분포에 있어서 서로가 동질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들 자료가 빈도가 가장 많은 동사의 보충어 용례에 있어서 분포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영어 학습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그러면 동사의 보충어 용례와 관련한 자료의 이질성에 어떤 자료군 또는 어떤 하위 용례군이 기여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Bonferroni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사후분석은 가장 보수적인 사후분석 중의 하나이다. 한 자료 안에서 여러 개의 가설을 검정할 때 나타날 수 있는 type 1 오류를 줄이기 위해 다중 검정 회수를 p값에 곱하여 보정된 p값을 유

의수준인 .05와 비교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5종의 교과서와 2종의 검사지가 사용되었으므로 모든 자료의 총합이 7이 된다. 이 경우 다중 검정 회수가 21이므로, 7개의 자료에서 추출한 자료 쌍의 p값에 21을 곱하여 얻은 보정된 p값을 .05와 비교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사후분석을 한 결과, 교과서 C와 2015학년도 NAEA 영어 시험의 보정된 p값이 .042가 되어 이들 자료군이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보정된 p값이 .06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교과서 A와 2015 NAEA 영어 시험의 자료군도 다른 여타의 자료군보다도 동질성이 낮게 나왔다.

중3 영어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부정사의 동사 보충어 용례의 분포가 자료에 따라 달라지는지 Monte Carlo 정확검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가 아래와 같다.

<표11> 중3 교과서 부정사의 동사 보충어 용례 교차분석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 검정)	Monte Carlo 유의확률 (양측 검정)		
				유의확률	99.9% 신뢰 구간	
					하한	상한
Pearson 카이제곱	31.511 ^a	20	.049	.042 ^b	.041	.043
Fisher의 정확검정	25.799			.081 ^b	.080	.081

a. 24셀(8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최소 기대빈도는 .47임.

b. 난수 시작 값 2000000(를) 가지고 1000000개 표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확검정 통계량이 25.799이고 Monte Carlo 정확 유의확률이 .081인 것을 볼 수 있다. 유의확률이 일반적인 유의 수준인 .05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 수준 5%에서 이들 자료 간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중3 교과서 5종에 나타난 동사 보충어 용례의 분포는 자료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표11>의 결과는 결국 교과서끼리는 모든 부정사의 용례의 분포에 관해 동일하지만, 2015학년도 NAEA 영어 시험이 부정사의 동사 보충어 용례에

관한 한 교과서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래 <표12>와 <표13>의 비교가 이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뒷받침한다.

<표12> 중3 교과서와 2015 NAEA 부정사의 동사 보충어 용례 교차분석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 검정)	Monte Carlo 유의확률 (양측 검정)		
				유의확률	99.9% 신뢰 구간	
					하한	상한
Pearson 카이제곱	49.818 ^a	25	.002	.002 ^b	.002	.002
Fisher의 정확검정	39.700			.005 ^b	.005	.006

- a. 29셀(80.6%)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최소 기대빈도는 .52임.
- b. 난수 시작 값 2000000을(를) 가지고 1000000개 표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13> 중3 교과서와 2016 NAEA 부정사의 동사 보충어 용례 교차분석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 검정)	Monte Carlo 유의확률 (양측 검정)		
				유의확률	99.9% 신뢰 구간	
					하한	상한
Pearson 카이제곱	39.071 ^a	25	.036	.032 ^b	.031	.033
Fisher의 정확검정	32.170			.055 ^b	.054	.056

- a. 29셀(80.6%)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최소 기대빈도는 .47임.
- b. 난수 시작 값 2000000을(를) 가지고 1000000개 표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12>는 부정사의 동사 보충어 용례 분포에 관해서, 중3 영어 교과서와 2015학년도 NAEA 영어 시험을 비교한 결과이다. 정확검정 통계량이 39.700이고 Monte Carlo 정확 유의확률이 .005인 것을 볼 수 있다. 유의확률이 일반적인 유의 수준인 .05보다 작기 때문에 유의 수준 5%에서 자료들 간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동사 보충어 용례의 분포는 이들 여섯 자료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표13>은 부정사의 동사 보충어 용례 분포에 관해서, 중3 영어 교과서와 2016학년도 NAEA 영어 시험을 비교한 결과이다. 정확검정 통계량

이 32.170이고 Monte Carlo 정확 유의확률이 .055인 것을 볼 수 있다. 유의 확률이 일반적인 유의 수준인 .05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 수준 5%에서 자료들 간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동사 보충어 용례의 분포는 이들 여섯 자료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결과는 2015학년도 NAEA 영어 시험이 중3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정사의 동사 보충어의 용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표7>에서 보듯이, 통제 동사의 단순 보충어로 사용된 부정사절이 다른 6개의 자료에서는 모든 동사 보충어 용례의 평균 58.2%에 해당하지만, 2015학년도 NAEA 영어 시험에서는 33.3%에 그쳤다. 또한, 인상 동사의 단순 보충어로 사용된 부정사절이 다른 6개의 자료에서는 11.9%에 해당하지만, 2015학년도 NAEA 영어 시험에서는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하위범주화(subcategorization)에 의해서 for-명사구를 필요로 하는 부정사절과 외치된 부정사절을 포함하는 기타 용례가 다른 6개의 자료에서는 평균 3.6%에 불과하지만, 2015학년도 NAEA 영어 시험에서는 20%나 된다. NAEA 영어 시험이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것을 감안할 때 2015학년도 NAEA 영어 시험은 부정사의 동사 보충어 용례에 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5. 결론

본 연구는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현행 중3 교과서 5종과 2015-2016 학년도 NAEA 영어 시험에서 제시된 부정사의 용례를 형식통사론적인 입장에서 분류하고, 각각의 용례 분포가 자료에 따라서 다른지를 교차분석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Monte Carlo 정확검정을 실시한 결과, 현행 중3 교과서와 2015-6학년도 NAEA 영어 시험은 부정사의 주요 용례 분포, 내부 논항 용례 분포, 부사적 용례 분포, 그리고 형용사의 보충어 용례

분포에 있어서 자료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자료들은 부정사의 동사 보충어 용례의 분포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결과는 부정사의 동사 보충어 용례 분포 양상이 2015학년도 NAEA 영어 시험에서 너무 특출하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제작된 4종의 영어 I 교과서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지현(2016)의 결과와 비교하면, 부정사의 다양한 용례 제시 면에 있어서 중3 영어 교과서가 선택 교육 과정의 영어 I 교과서보다 더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이지현의 연구에서 사용된 4종의 영어 I 교과서가 부정사의 부사적 용례를 제외한 부정사의 주요 용례, 내부 논항 용례, 동사의 보충어 용례에 있어서 그 분포가 자료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에 반해, 본 연구의 중3 교과서는 모든 부정사 용례의 분포에 있어서 동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중3 영어 교과서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한두 가지 눈에 띈다. 비록 부정사의 결과와 문체 이접사의 용례가 학습용이성(learnability)을 고려하여 중3 이후의 학습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인/이유, 정도의 기준 용례들은 학생들의 학습 촉진에 충분한 입력이 될 정도로 교과서에서 더욱 빈도가 높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전치사의 보충어로 사용된 부정사의 용례는 모든 자료를 통틀어 1개에 불과하고,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례 또한 그 빈도가 너무 낮다. 따라서 2018년부터 적용될 2015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3 영어 교과서들은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부정사의 다양한 용례를 제시하는 데 있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결과가 교재 개발과 평가 문항 제작의 면에서 좀 더 의의가 있기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다룬 중3 영어 교과서와 이지현(2016)에서 다룬 영어 I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부정사의 용례의 분포를 교차분석을 통하여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중3 영어 교과서에서 빈약하게 제시된 부정사의 용례들은 영어 I 교과서에도 마찬가지로 빈약하게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정 용례의 빈약한 제시는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 부

정사의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면 제한의 관계로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후속 연구로 미룰 수밖에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논문을 마친다.

[ABSTRACT]

The Distribution of Infinitives in Middle School English 3 Textbooks
and NAEA Tests

Lee, Hyunoo

This paper concerns itself with how infinitive clauses and their uses are distributed among five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the 2015-2016 NAEA English tests. Four major uses of infinitives are identified: the external argument use, the internal argument one, the adjectival one, and the adverbial one. Comparison of the data annotated with these four major uses through Monte Carlo exact tests shows no significant distributional difference between these seven materials. The internal argument use of infinitives is further classified as the noun complement use, the verb complement one, the adjective complement one, and the preposition complement one. Monte Carlo exact tests also show no significant distributional difference between the data. In relation with various adverbial or adjectival uses of infinitives, Monte Carlo exact tests show no significant distributional difference between the data, but in relation to various verbal complement uses, they do show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data. Post-hoc analysis suggests that this is due to the peculiar pattern of the verbal complement uses of infinitives displayed in the 2015 NAEA English test.

Key words : 2009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Middle School English 3, NAEA tests, Infinitives, Cross-tabulation analysis, Monte Carlo exact test, Post-hoc analysis

참고문헌

□ 단행본

-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4]』, 교육과학기술부, 2011.
- 교육부,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14]』, 교육부, 2015.
- Biber, D., *Variation across speech and writ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8.
- Downing, A., *English grammar: A university course, 3rd ed.*, Routledge, London, 2015.
- Huddleston, R. & Pullum, G.K. (eds.),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02.
- Jackendoff, R., *X-bar syntax: A study of phrase structure*, MIT Press, Cambridge, MA, 1977.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London, 1985.

□ 논문

- 김은정, 「To-부정사 보충어절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 박강희, 「대용사의 형태구조적 분석을 통한 SE대용사와 SELF대용사 비교 연구」, 『국제언어문학』 32호, 2015, 263-281면.
- 이지현, 「영어 I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의 읽기 지문에 나타난 영어 부정사의 분포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 Beaman, K.,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 revisited: Syntactic complexity in spoken and written narrative discourse, in D. Tannen (ed.), *Coherence in spoken and written discourse*, Ablex, Norwood, NJ, 1984. 45-80면.
- Chomsky, N.,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K.L. Hale and S.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Essays in linguistics in honor of Sylvain Bromberger*, MIT Press, Cambridge, MA, 1993. 1-52면.
- Kim, J.E. & Yoo, I.W. A corpus-based study of to-infinitive errors in Korean college freshmen's writing. *The Journal of ASIA TEFL* 12(4), 2015. 37-60면.
- Payne, J., The English accusative-and-infinitive construction, in P. Collins & D. Lee (eds.), *The clause in English: In honour of Rodney Huddlesto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 1999. 187-228면.

Quintero Ramírez, S., Syntactic functions of *infinitives in English*,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 English Literature* 4(1), 2015. 182-190면.

□ 교과서

김성곤 외 10인, 『Middle School English 3』, 두산동아, 2013.

김임득 외 12인, 『Middle School English 3』, 능률교육, 2013.

배두본 외 23인, 『Middle School English 3』, 미래엔, 2013.

이석재 외 12인, 『Middle School English 3』, 비상교육, 2013.

이재영 외 10인, 『Middle School English 3』, 천재교육, 2013.

이 논문은 2017년 3월 15일 접수되어 4월 3일까지 심사받아 4월 10일 게재 확정됨.